

## 진짜 위기는 '예수, 구원의 유일성' 이 가려지는 것

'미주 다니엘기도회'가 현지 텍사스 주 달러스 세미한교회(이은상 목사)에서 3일부터 9일까지 7일에 걸쳐 개최된 가운데 기도회 여섯번째 날인 8일(금)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단 한번의 인생'(사도행전 4: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 목사는 "아놀드 토인비가 저술한 <역사의 연구>를 보면 인간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점점 더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연구하고 그 연구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창조적인 소수(creative minority)'라고 부른다. 일반 사람들은 물살에 흘러가지만,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인류의 발전을 만들어 온 사람이 바로 창조적인 소수이다. 인류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가 함몰도 도전이 있을 때 기독교는 이 도전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앞뒤려 역사를 이뤄냈다. 이런 사



미주 다니엘 기도회가 3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텍사스 주 세미한교회(이은상 목사)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기도회 여섯째 날 강사로 선 류응렬 목사는 모두가 위기의 시대라고 입을 모으는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람들은 '영적 창조적인 소수'이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역사의 요동을 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창조적인 소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했다. 류 목사는 "어려운 도전,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독교는 무너진 적이 없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

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 역사의 어둠을 뚫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뤘다"며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시대의 어둠을 뚫고 가톨릭교회의 면죄부에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고 이것이 개신교를 향한 신호탄이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잡혀갔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이 땅에 드리운 어둠의 역사를 뚫고 나서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탄생했다"고 했다.

이어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진짜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려는 헌신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십자가를 건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믿어야 교회이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다.

류 목사는 "1985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이 있다.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진리의 복음을 가슴에서 지워버리면 교회에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 2면에서 계속

## 은퇴 선교사 갈수록 늘어... 노후 대책 시급

은퇴를 앞뒀거나 현재 은퇴한 선교사들의 노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조사해 7일 오전 KWMA 세미나실에서 발표한 '2023 한국선교 현황 보고'에서 드러났다.

178개 단체(79.8%)가 응답한 2023년 은퇴 선교사 비율은 1.25%로, 전체 선교사 수에 대입하면 2023년 274명의 장기 선교사가 은퇴한 것으로 추산됐다. 은퇴 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은퇴 숫자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사역을 지속하는 선교사들도 꾸준히 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은퇴 후 사역을 지속한 장기 선교사 비율은 60.2%에 달했다. 이 비율도 2020년 44.1%, 2021년 54.8%, 2022년 58.8%로 계속 늘고 있다.

은퇴 후 사역을 중단한 선교사의 80%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은퇴 후 사역 지속 선교사의 70%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은퇴 후 거주지 비율은 국내 49.3%, 해외 49.3%, 기타 1.4% 등이다.

선교단체들 중 은퇴 연령 규정이 있는 곳은 46.5%인 92개 단체로 2022년 91개 단체보다 한 곳 늘었고, 규정이 없는 곳은 53.5%인 106개 단체로 2022년 94개 단체에 비해 12곳이나 늘었다.

은퇴 선교사들이 늘면서, 노후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설문에 응답한 150곳 중 국민연금 가입 원칙이 있는 선교단체는 34곳, 가입 보조를 해준 곳은 4곳에 불과했고, 가입을 권유한 곳이 40곳, 가입 규정이 없는 곳이 83곳이었다.

→ 2면에서 계속

## 社 告 가주아동보호법 서명 운동

가주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이 한인교계와 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서명 운동은 2024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할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 운동으로 이 운동을 주관하는 세라 김 사모(TVNEXT)에 따르면, 한인 커뮤니티의 서명 목표는 5만 5천~7만 개이다. 한인 청원서 마감일은 4월 13일이며, TVN-EXT의 주소로 보내한다. 서명

운동 본부는 "다음 세대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악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운동은 생명 살리기 운동"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서명서 보낼 주소: TVNEXT  
 남가주: 16030 Las Palmeras Avenu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  
 문의: 강순영 목사(310-995-3936), 강태광 목사(323-578-3936) 윤우경 본부장 (213-500-5449) 캠페인 관련 상세 정보 www.TVNEXT.org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셀비의 광가성가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제마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1.5세의 베스트셀러 'My Hero', 할리우드에서 영화화

## 영화 제작자 필립 B. 골드파인, 유나이티드 웨스트민스터 그룹 MOU 체결



(왼쪽부터)할리우드유니버설스튜디오 총괄 감독 필립 B. 골드파인, 유나이티드웨스트민스터 그룹 회장 제임스 김, My Hero의 저자 크리스틴 리.

할리우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총괄 감독 프로듀서 필립 B. 골드파인)와 유나이티드 웨스트민스터 그룹(회장 제임스 김)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인 My

Hero(저자 크리스틴 리)를 한국과 미국에서 영화화해서 제작하기로 1일 MOU를 맺고 합작해 출발전다. 저자인 크리스틴 리는 1.5세 교포로서 성공한 이야기를 책에서 담

하게 써 내려갔다. 출판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다시피 성장한 그녀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다. 불굴의 의지를 어머니로부터 그대로 물려받

은 그녀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크게 성공하였고, 이제는 대학을 소유한 교육가로, 그리고 작가로서도 역량을 보여 주었으며, 매년 자신을 개선하고 향상해 나갔다. 이 책 My Hero(엄마는 나의 영웅)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뤄 내는 방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바로 독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 책을 소개했다. 크리스틴 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크게 성공한 기업가이며, 자선사업가, 작가, 교육가, 그리고 두 자녀의 어머니이다. 현재 California Regency University (前 Yuin University)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자 크리스틴 리와 필립 B. 골드파인은 모두 자기계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사상가로 알려진 《위대한 발견》의 저자인 밥 프락터(Bob Proctor)의 제자들이다. 크리스틴 리는 밥 프락터로부터 “Mental Science”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녀의 성공은 밥 프락터의 탁월한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의

영향으로 자기계발 분야인 ‘Destiny Coaching’에서 좋은 ‘멘토링(Mentoring)’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밥 프락터는 그녀가 My Hero(엄마는 나의 영웅)를 집필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할리우드 미디어 그룹 Hollywood Media Bridge의 창립자인 필립 B. 골드파인은 100개가 넘는 영화와 수많은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했다. 또 아카데미상 수상 다큐멘터리 ‘The Lady in Number 6: Music Saved My Life’의 제작자이며, 2011년에는 ‘El Vacilon’의 작가로서 에미상을 수상한바 있다. 그는 워너 브라더스, 트윈티 센츄리 폭스, 월트 디즈니, 소니, MGM, 파라마운트, 라이온스 게이트 필름 등 할리우드의 모든 주요 영화 스튜디오와 네트워크에서 영화와 텔레비전을 제작했다. 2024년에도 다양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젝트를 제작했는데, 그의 작품 중 하나인 ‘Lunar Lockdown’은 올해 초에 개봉했다. 필립 B. 골드파인은 그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으로 인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민선 기자

### → 1면 기사 “진짜 위기는 ...”에 이어서

“제가 미국 의회에 여러 차례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인도했다. 공문서에 기도회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다. 문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다”라고 했다.

류 목사는 “A.W. 토저가 쓴 저서 《세상과 불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로 변화를 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을 떠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라며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말하지만, 정말 위기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앞에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나

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한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고 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믿었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인 줄로 믿는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의 목적, 행복의 근원이 달라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행복 감격을 진짜 누리시길 바란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다”고 했다.

끝으로 류 목사는 “주님 앞에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사도가 된 것은 그가 기도했을 때,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위대한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은 없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가슴속에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주인 삼아야 한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고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 1면 기사 <은퇴 선교사...>에 이어서

개인 연금은 더욱 미비해, 가입 원칙이 있는 선교단체는 5곳이었고, 가입 보조를 해준 곳은 없었다. 가입을 권유한 곳은 40곳, 가입 규정이 없는 곳이 104곳이었다.

퇴직금·은급금 제도 ‘위탁 운영’ 또는 ‘단체 또는 교단이 운영’ 하는 경우도 32곳에 불과했다. 이 항목에 응답한 단체 소속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37.2%로, 응답한 단체 속 비율로는 22.2%에 불과했다.

은퇴 후 재정 대책에는 파송 교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파송 교회와 관련 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145곳 중 82.1%인 119곳이나 됐고, 17.9%인 26개 선교단체만 파송 교회와 논의나 협력 요청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흥현철 원장은 “각 선교단체와 교단은 장기 선교사 은퇴 규정과 함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책을 파송 교회들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선교사들의 은퇴 후 국민·개인 등 연금 제도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흥현철 원장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나머지 단체들이 국민연금 규정을 마련했다는 기대를 하기 힘들기에, 실제로 국민연금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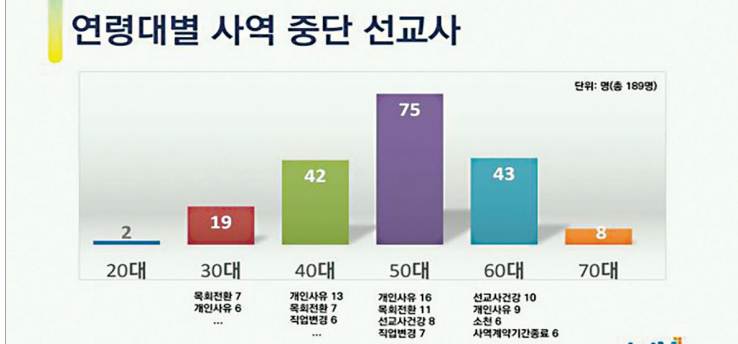
정 제정 단체 비율은 2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를 제외하고 2023년 사역을 중단하거나 단체에서 탈퇴한 선교사 비율은 1.71%이었다. 응답한 선교단체 153곳에서 사역 중단 선교사로 총 271명을 보고 해, 전체 선교단체 비율로 환산하면 375명 정도로 추정된다.

요인으로는 ‘기타 개인 사유’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역 및 직업 변경’ 64명, ‘선교사의 건강 및 질병’ 47명, ‘소명 및 자질’ 18명, ‘가족 및 재정 문제’ 17명, ‘선교 교역 환경’ 15명 순이었다. 세부 요인으로는 개인 사유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회 전환 31명, 선교사 건강 31명, (현지·동료·단체 간 등) 갈등이 29명 순이었다. 사역 중단 연령을 기재한 189

명 중에서는 50대가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43명, 40대 42명, 30대 19명, 70대 8명, 20대 2명 순이었다.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개인 사유를 제외한 가장 높은 요인은 ‘목회 사역으로의 전환’이었다.

임시 귀국해 대기 중인 장기 선교사(국내 사역으로 전환 제외)는 선교단체 134곳에서 880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귀국 요인은 크게 사역 외 환경과 개인적 이유 두 가지로 나뉜다. 치안·전염병·비자 거절·추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입국한 선교사 비율은 19.0%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2022년의 36.9%에 비해 많이 줄었다. 안식년, 건강, 모금, 방문, 국내 행사 등 개인적 이유는 81.0%로, 2022년의 63.1%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대웅 기자



연령대별 사역 중단 선교사. ©한국선교연구원(kriM)

# 고봉준 목사 초청 특별 간증 집회

## 영화가 같은 이야기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받은 아버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고봉준 목사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은 없다”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연약함과 고통 중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간증 집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봉준 목사

-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여의도순복음 총회) 남부지방회 소속 목사
- 아름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협동목사
- 사마리아 교정선교회 대표목사
- 법무부 교정위원
- 의정부교도소 종교위원
- 교도소 집회 25년간 1,500회 설교
- 경찰서 유치인 설교 5년간 500회 설교
- 미국 25회, 일본 22회, 브라질, 인도네시아 2회, 중국 2회,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5회,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에 간증 집회와 부흥회 강사로 72회 사역
- 국내 외 많은 교회에서 간증집회와 부흥회로 사역 중



문의 : 기독교일보(213)434-1170

- 4월 10일(수) 오후 7:30 만남의 교회 (담임 이정현 목사)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 4월 14일(주일) 오전 11:00 주백성 교회 (담임 김성규 목사) 3400 W 6th St Suit 202 LA주, CA90020
- 4월 14일(주일) 오후 7:00 웨스턴 교회 (담임 진진호 목사)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 4월 17일(수) 오후 7:00 남가주 은혜선교교회 (담임 김창곤 목사)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 4월 19일(금) 오후 7:00 We Bridge 교회 연합 집회
- 4월 21일(주일) 오전 11:00 가스펠 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1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1
- 4월 21일(주일) 오후 3:00 더 섬기는 교회 (담임 김영일 목사)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 4월 26일(금)~27일(토) 콜롬비아 리오아차 순복음교회 (김주영 선교사)
- 4월 28일(주일) 콜롬비아 보고타 순복음교회 (김주영 선교사)

#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과 더불어 살지 못하면..”



이동원 목사 ©기독일보

## 영적 성숙의 단계: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단계, 제자를 키우는 영적인 아버가 되는 단계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가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를 초청해 현지 시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흥사경회를 개최했다.

9일 이동원 목사는 '영적 성숙의 단계'(요한일서 2:12-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베드로후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서 자라가라'이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이어 영적인 경험, 성장에 따라 성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흥과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이 와야 한다"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경험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인 안에 아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마음 속에 분노가 있는 것이다. 성인이 진짜 성인으로 성숙해지려면 분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본문 2장 14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시작하는 이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아버지께 구하고 찾아서 얻어낸다. 아기가 아빠를 부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울어서 받는다. 저는 영적인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응답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느낌이 든다. '기도하니 응답하시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 목사는 "세번째 영적 성숙의 단계는 청년들의 단계이다. 영적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공부와 암송을 하면서 죄를 범한 일이 생기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절제하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과 더불어 살지 못하면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이다.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줄 알아야 한다. 청년의 단계에서도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단계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깊이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일하면서 "영적인 아버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부지런히 전도를 많이 해서 참 아들 디모데, 디도, 옥중에

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었다. 얼마나 화목의 열매를 맺느냐는 것은 얼마나 영적인 아버가 되어 양육해 제자를 키우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목사는 1970년대 초에 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 왔을 때 자신을 도왔던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CBMC 창설 멤버 중의 한 장로님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였으며,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증거했다.

그는 "장로님의 장례식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고인을 회고하면서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다' 저 분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다'고 했다"며 "말씀대로 살아온 한 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많은 주의 제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마쳤다.

토마스 멩 기자



## 유산 상속 무료 세미나 큰 관심 속 마무리



은혜한인교회 은혜법률 및 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 장로)이 지난 3월 10일(주일) 유산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은혜한인교회 은혜법률 및 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 장로)이 3월 10일(주일) 유산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250여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는 현 뉴욕라이프 상속법 고문 변호사, 구 LA 영사관 고문 변호사,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최

재홍 변호사(상속법), 현 Bae Park & Nazdjanova, PLC, 파트너 변호사, 구 Yocca Patch & Yocca, LLP 소속 변호사, HJCAmerica, INC 사내 변호사인 배영호 변호사(상속법) 이원석 변호사가 나섰다.

주최 측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1세대가 자리를 잡으면서 상속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이 상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앞으로 상속, 상법, 부동산법, 메디칼, 메디케어, 노인가파트 입주 방법 등을 주제로도 개최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 교육 선교 위한 자격증 무료 세미나

교육선교를 위한 ACSI 교사 Certificate 자격증 취득 무료 공개 온라인 세미나가 Global Vision School 주최로 3월 19일 화요일 저녁 8시(서부 시간)에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ACSI 사립 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 자격증의 의미 △ACSI Certificate 종류 △ACSI Certificate 자격증 신청 절차와 방법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CPoE) 교육 절차와 방법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특별 교사 자격 및 절차 △유치원 원장 및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자격 및 절차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세미나를 준비한 제임스 구

교수는 "ACSI 교사 Certificate는 미국 및 해외 선교지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인증을 받는 절차로 다음세대를 향한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가진 모든 평신도, 교육자, 선교사, 신학생, 등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신청은 ICMM 홈페이지([www.churchhomepage.org](http://www.churchhomepage.org/))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Zoom 교육 링크는 다음과 같다.

ACSI Certificate Seminar  
3/19(화), 8:00 PM (서부시간)  
Join ID 736 047 4791  
Security Passcode 2024  
문의: 전화 949-667-0264 ( J. Lee, JDSN) 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mailto:icmm@churchhomepage.org)

HYUNDAI  
**Getaway**  
Sales Event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스프링 대세일**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3 HYUNDAI Santa Fe SEL**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10,0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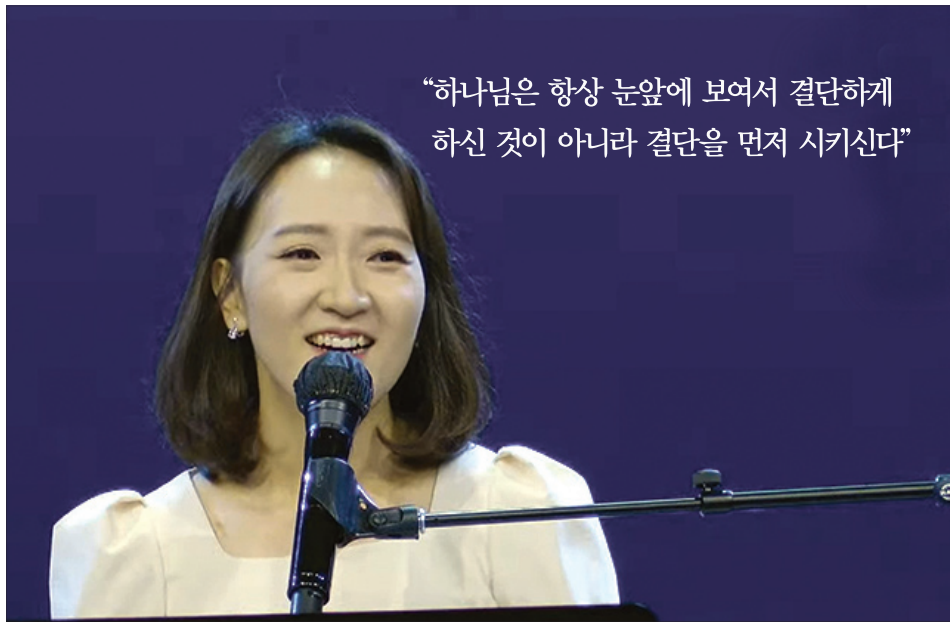
#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기도 후 찾아온 아들의 감전 사고

텍사스 주 댈러스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에서 3일부터 9일까지 열린 '미주 다니엘기도회'의 5일 차에 지선 전도사(찬양사역자)가 '결단'(에스겔 37:5-6)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했다.

지선 전도사는 "찬양 사역을 한 지 12년이 됐으며 무명 생활까지 합치면 19년째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 무명 생활도 지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2019년 코로나가 생길 줄 아무도 몰랐던 때에 감사하게 3개의 대학에서 함께 일하자고 했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네가 하던 방법으로 선택해라'고 하시는 거 같아서 3개의 대학 중 가장 유명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찬양인도학과'를 만들었다"며 "아주 작은 학교에서 1년에 딱 10명만 뽑아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 사모님, 청년, 장로님들이 저에게 보컬,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사역자로 함께 훈련한지 3년이 되었다"고 했다.

지선 선교사는 "저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 신혼생활은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7년이 지나 저의 하나님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래요'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를 한 그날 기도 제목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의 좋은 달란트는 피아노, 노래가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던 어느 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이가 손에 물이 묻은 채로 젓가락을 콘센트에 넣었다가 220볼트의 전기에 감전되었



"하나님은 항상 눈앞에 보여서 결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단을 먼저 시키신다"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는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의 기도 후 찾아온 아들의 감전 사고, 그 사고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간증했다. ©기독교일보

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면서 아이가 생사를 넘나들던 중 다행히 살게 되었다. 그러나 제 아이는 2도의 큰 화상을 입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관통한 아이 열 손가락의 신경이 끊어지면서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랑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이 가장 깊은 눈물인 줄 알았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배꼽부터 오열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 아이의 남은 손가락을 살려달라고 오열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황당한 기도를 나오게 해 주셨다. 병실에 수분이 빠져 뼈만 남아있고, 생기가 없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전도 받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등 감정의

로 살지 않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선 선교사는 "아들의 남아있는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 대수술을 했으며 피부 이식술 등 큰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나님은 이 때 저에게 성경책으로 다시 감동을 주셨다. 성경처럼 꼭 짜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오는 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이 일기를 나중에 아들이 보고 나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세 번째 인생의 결단을 하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작은 결단을 기뻐하셨다"며 "그리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

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찬양이 시작되었다. 저의 무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을 확인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눈앞에 보여서 결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단을 먼저 시키신다"고 했다.

그녀는 "제가 들어놓은 보험 덕에 아들이 사고 난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험금을 받고 세 차례 더 대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은 저에게 '엄마, 나 혼자 수술실에 안 들어가잖아요. 나랑 의사 선생님, 천사,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니 4명 넘게 들어가요'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거 같았다. 내 자녀에게 좋은 보호자는 제가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자 그대로 퇴원하기로 했는데 봉대를 풀었던 그 날 놀랍게도 제 아들의 오른손 신경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왼쪽 손도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장애 판정이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지선 선교사는 "제 아들의 손가락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손가락을 창피하거나 숨기지 않는 아들이 되었다"며 "제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주님께서 붙들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2일(토) 갈보리선교교회에서 424회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2일(토)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424회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OC목사회 회장 이원석 목사는 디모데전서 2:1과 8절의 말씀으로 "간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원석 목사는 "이 시대는

## "미국의 현실, 간절한 기도 필요해"

크리스천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과연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설교를 시작했다. 이 목사는 "기도와 간구는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연합해서, 정확하게,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지역사회의 교회와 단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설교했다.

1부 기도회는 신용 회장의 사회와 연합회 이사 겸재선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이원석 목사가 설교한 후 나라와 민족, OC지역과 지역 교회, 해외 선교사와 선교지, 연합회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서문준 이사가 마침 기도를 했다. 2부 순서는 민갑 이사장의 진행으로 교회와 OC교계 소식을 전했다.

연합회는 은혜한인교회의 고난주간 복음치유집회(3/25), 감사한인교회의 이상준 목사 초청 부흥회(3/17)를 설명했다. 교계연합 소식으로는 OC목사회 주최 "법과 교회 세미나-종교자유와 부모권리(3/18), 자녀보호 시민발의 청원서명운동, OC교계연합 부활절 연합예배(3/31)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올해 6월에 있을 "연합성가합창제"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연합성가합창제는 36회를 맞으며 10여 팀의 성가대와 2팀의 특별출연으로 기획하고 있고, 6월 2일 주일 저녁 6시에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연합성가합창제 참여문의: 562-399-2022(신용 회장)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 30년  
함께할 그 이상

Always be with You



메이저리크 코리아 특급 박천호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SMG 서울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애니 문 보험은**  
서울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 광고에 나오는 인물은 실제 한지는 아니며 단지 광고 모델임을 알려드립니다.



# 센터메디컬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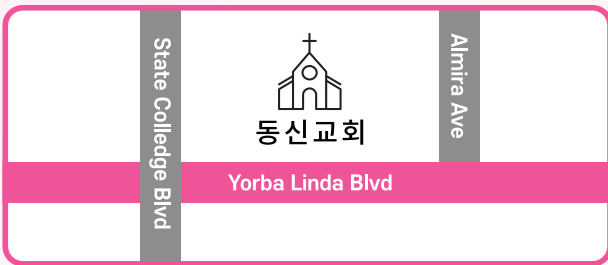
## 2024 무료 유방암 검진 행사

**유방암 예방은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 오렌지카운티

5월 15일 (수) 9am-4:40pm

**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 사우스베이

5월 16일 (목) 9am-4:40pm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 대상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  
하루 최대 40명(전화예약 선착순)

### 사은품

\$10 한남체인 쿠폰 & 고급 염색약 증정

센터메디컬그룹 구디백 증정

(해당 상품은 검진받으시는 분들 한정으로 제공됩니다.)  
\* 사은품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714 - 904 - 1701 으로 전화주세요.

###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 덩어리 혹은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
- 유두 분비물 혹은 혈고 반복되는 습진과 같은 변화
-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변화가 있는 경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센터메디컬그룹에서 준비한  
연례 유방암 검진 행사!

# “역사는 선한 사람들의 침묵을 가장 큰 비극으로 기록할 것”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올라오고 있다. 우리들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동안의 무법 지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다음세대 보호를 위한 청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월 23일(금)은 해한인교회 금요성령집회에서 세라 김 사모(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는 이 운동을 통해 지켜내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에 대해 전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스나이퍼처럼 정확하게 적을 알고, 구원할 사람을 알아서 분별력을 가질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며, “자녀의 세계관을 지켜내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청교도 정신, 성경적 세계관 위에 세워진 미국이 악한 세력에 의해 잠식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말씀에 기초해서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 이후, 정체성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 주들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악법들이 통과되었다. 미국은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진 나라였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라 김 사모가 다음 세대 보호를 위한 청원서 서명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알렸다. ©유튜브

## 미신, 아동 학대, 인신 매매 등 온갖 악한 전통들이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 때문

많은 악법들이 제거됐다. 온 세상의 이상한 미신과 이상한 일들, 아동 학대, 와이프를 돈을 주고 사고, 아동을 돈을 주고 팔고, 아동 노동, 이런 악한 전통들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 세계관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13년 전, 미 전역에 1.7%의 동성애 비율이 4.5%로 늘어났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세라 김 사모는 오늘의 시대 이사야 서의 예언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사 5: 20)이 일어나고 있다며 탈 성 전환자 클로이 콜(Chloe Cole)의 사례를 제시했다.

13세에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치료, 이중 유방 절제술을 받고 남성이 되고자 했던 클로이 콜(Chloe Cole)은 성전환 시술 후 후회하고 카이저, 캘리포니아 정부, 학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가슴을 돌려 받고 싶고, 모유수유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 어머니가 카이저재단병원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카이저 측의 답변은 “선택권은 두 가지가 있다. 네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죽은 딸을 안고 네가 우는 게 한 가지 선택이다, 두 번째는 수술시켜서 행복한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세라 김 사모는, “창조질서를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희생제물이 된다”며 자기 정체성의 혼돈이 빚어낸 결과물들을 예시했다. “이 남자는 자기가 용이라고 생각하고 신체를 용처럼 만들었다. 자신을 개로 인식하는 사람, 자신을 고양이로 인식하는

사람, 자신을 앵무새로 인식하고 앵무새 처럼 되려고 귀를 제거한 사람. 아이들은 반항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깨끗하다. 실수삼아 하고 재미 삼아 하는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닌데 이들이 아이들에게 악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게 문제다.”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일어난 게 아니다. 62년, 63년도 부터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이 빠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이슈는 1972년 시카고 Gay Rights Platform에 200명의 리더들이 모여서, 미국의 17가지 법안을 바꾸자 결단을 했다. 그들의 결단은 죽기 살기의 결단이었다.”

마지막으로, 세라 김 사모는 이들 역시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린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 자들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죄는 죄라고 해야 한다. 지금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창조질서를 순종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집회를 마무리 했다. “역사는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주디 한 기자

## 영 북음주의 단체, 전 세계 성경 대학에 도서 1만 권 기부



©Langham Partnership

영국의 한 북음주의 단체가 전 세계적인 신학 자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1만 권이 넘는 책을 기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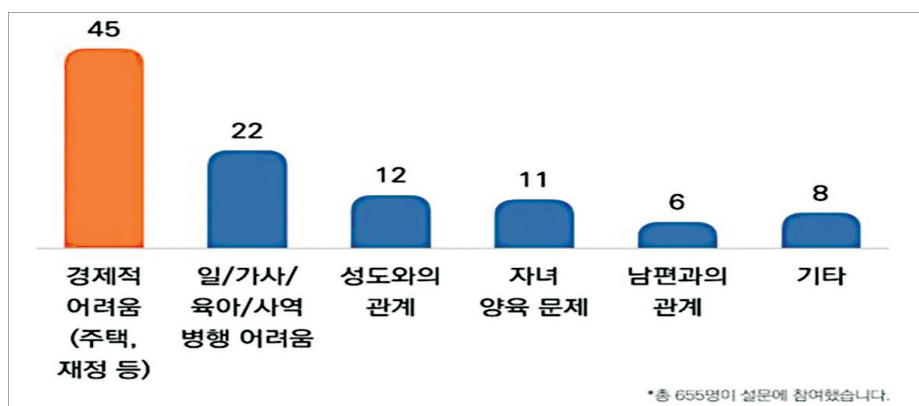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랭햄 파트너십(Langham Partnership)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성경 대학을 위한 도서’ 계획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신학 자원의 ‘심각한 부족’이 글로벌 리더십 위기를 초래하고 학위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있다고 보고 이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 세계의 목회자들 중 80% 이상이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많은 대학 및 신학교 도서관에는 그들을 가르칠 충분한 자원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서구 기독교

인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이 계획을 통해 성경 대학은 랭햄 카탈로그에 있는 7,200권의 책 중 선택해 자체 핵심 도서관을 만들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대학은 물류와 배송을 포함해 보조금 300파운드를 받게 된다.

영국 및 아일랜드 랭햄의 개발 관리자인 사이먼 파울즈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매일 가난, 압박, 박해에 직면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큰 잠재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교회는 잘 훈련된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랭햄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 비축된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 신학적인

## 목회자가 생각하는 사모의 가장 큰 고민



“사모님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문 조사 결과.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가 생각할 때 자신의 아내가 사모로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무엇일까.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최근 연구소 구독자 중 남성 목회자 655명을 대상으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하나만을 꼽으라고 했을 때 답변자 중 45%가 경제적 어려움(주택, 재정 등)을 선택했다. 개척교회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 국교회 현실에서 전체 응답자의 배우자 절반 가까이가 물질적인 고단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가사/육아/

사역 병행 어려움’ 22%, ‘성도와의 관계’ 12%, ‘자녀 양육 문제’ 11%, ‘남편과의 관계’ 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건강’, ‘외로움 문제’, ‘전통적 사모상에 대한 교회의 암묵적 기대’, ‘사역에 대한 고민’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 목회자는 “목사 가정의 경제적 궁핍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사모는 오직 남편 목회자의 사역을 돕고 교회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요구받기도 해 쉽사리 직장을 드러내고 다니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송경호 기자

로 건전한 연구와 훈련의 기초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했다. 키마 국제신학대학원(KIST) 학장인 로즈 체

메메트 목사는 “KIST 전 직원은 랭햄이 아프리카 교회에 제공한 책들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2024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2024년 대박



### 100% Made in USA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 ITC :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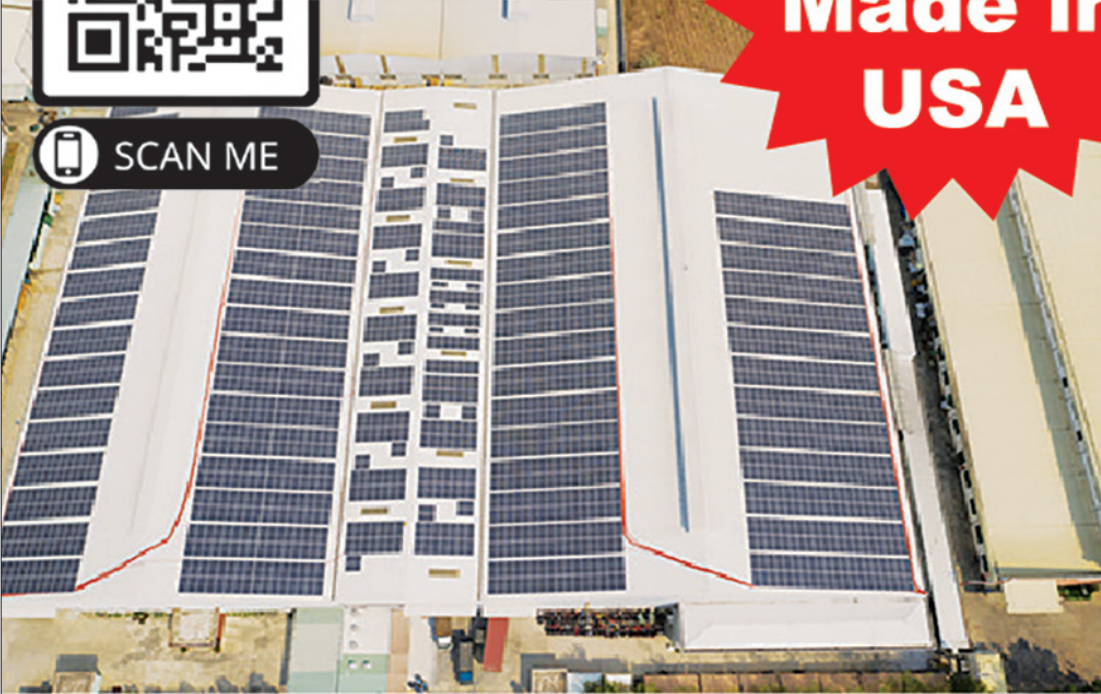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SCAN ME



Lic#854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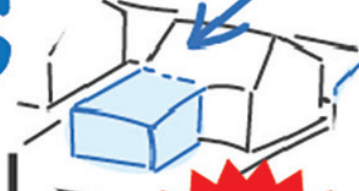
##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 ADU 전문

##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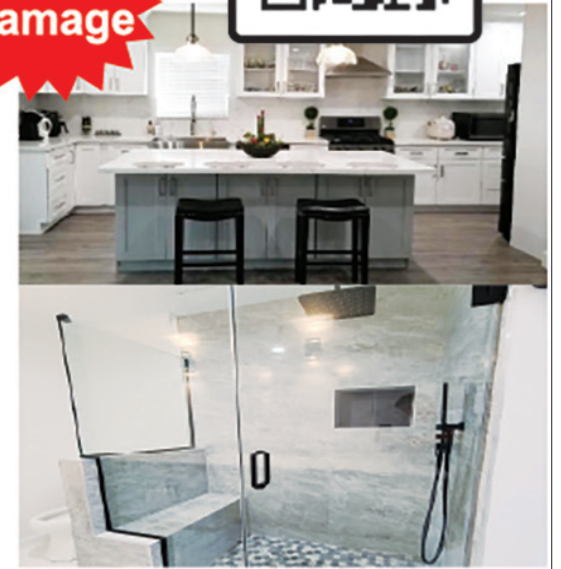
##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인터뷰] 시니어 맞춤 병원 '센터메디컬클리닉' 임유일 원장



가든그로브 센터메디컬 2호 지점 임유일 원장은 환자 한 분 한 분을 꼼꼼하게 진료하고자 센터메디컬 클리닉을 선택했다. ©기독일보

질적으로 우수한 진료를 추구하며 개인 맞춤형 진료를 제공, 시니어를 위한 혜택과 차별화, 라이드 서비스 환자와의 소통 중시, 1시간씩 진료

지난 2월 초에 센터메디컬그룹의 2호 직영 병원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점이 개원했다. 가든그로브 지점 '센터메디컬 클리닉(주치의 임대홍 내과전문의)'은 2월 1일 개원식에 이어 2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내과 전문의 임유일 주치의가 2호점의 담당으로 진료를 하게 된다.

가주의 시니어들을 섬겨온 전문 의료 그룹 센터메디컬그룹은 빠르고 정확한, 그리고 최상의 진료를 주는 것으로 소문이 나면서 가든그로브 지역들의 관심이 뜨겁게 일고 있다.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진료를 위하여 개인 맞춤형 진료를 표방하고 있는 센터메디컬 클리닉은 하루 환자수를 제한하여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고품질 집중 진료를 선사하고 있다.

간단한 예방접종부터 시니어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노인성 질환, 소화,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의 진료가 모두 가능하여 가든그로브 지역 내의 시니어들에게 보다 편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은 당일 예약 진료도 가능하며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 이메일 및 온

라인 상담 등 시니어를 위한 많은 방법의 진료가 가능하다.

임유일 주치의는 시카고 미드웨스턴 의대를 졸업하고 Bayonet Point 병원에서 레지던시를 마치고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얻었다. 다음은 임 주치의와의 일문일답.

◆ 한국말이 유창하다. 자기 소개를 한다면.

미국에 중학교 1학년 때 왔다. 미국에 와서 한국책을 많이 읽으면서 한국의 언어와 정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두 언어가 다 편해진 것 같다. 밀워키에 있을 때 시니어 한국 환자분들이 영어 때문에 진료받기를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도움을 준적이 있다. 이런 경험으로 시니어분들을 잘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 센터메디컬 클리닉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밀워키에서 일했던 병원도 그렇고, 여기 카이저를 비롯해 다양한 병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환자분들을 한 분씩 꼼꼼하게 볼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이 부분에서 있어서 센터메디컬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 센터메디컬 클리닉은 장점이 있다면? 어떤 철학으로 운영이 되는지.

시니어만을 전문으로 하는 메디컬그룹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과 서비스가 차별화되고 있

다. 장점은 100% 예약 진료 시스템이며 라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 환자분들 중에 한국어로 병원 라이드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예약 후에 병원으로 무료 라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환자와의 의사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환자당 1시간씩 진료한다. 이는 미국의 평균 5분 진료시간에 비하면 정말 긴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약 조절, 건강 생활 체크까지 하게 된다. 이밖에 시니어들을 생각하여 다양한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기할 필요가 없다.

◆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가 의사로서 젊은 편이고, 최신 의학과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근거의학을 기반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세미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쓰던 약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약들은 안쓰는 추세이다. 이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시니어분들이 오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료할 것이다.

토마스 멩 기자

문의: (714)786-3647 주소: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 <건국전쟁> 미국 전역으로 상영 확대



상영회 기념 사진. ©한미동맹USA재단 제공

한국에서 100만 관객 돌파한 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2월 16일 LA의 CGV극장에서 개봉한 데 이어, 미국 전역 주요 도시에서 상영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상영 요청이 이어지자, 한미동맹USA재단 등 비영리단체들이 협력하여 미국 주요 도시에서 비영리 목적의 상영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동맹USA재단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이다.

<건국전쟁> 하와이 상영회는 한미동맹USA 재단과 건국대통령이승만재단(회장 김동균)의 공동주최로 지난 3월 2일부터 모두 5회 열렸다. 특별히 하와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동맹의 주춧

돌 역할을 하며 대통령 하야 후 서거할 때까지 약 30년 반 동안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김명태 회장은 "오늘날 세계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의 번영에는, 당시 선각자인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설계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뒷받침이 되어 왔다"며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감동적으로 보여줬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미동맹USA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도시에서 상영회를 개최하여 미국 내 많은 관객들에게 <건국전쟁>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선 기자

## 사우스베이 목사회 3월 정기 모임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우스베이 목사회 제공

사우스베이 목사회(회장: 김우준 목사) 3월 정기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었다.

지난 3월13일(수)오전 8시 남가주기쁨의교회(이항영 목사)에서 김우준 목사(토렌스 조은교회)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이 함께 찬송을 부른 후에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사회자의 인도로 성경을 합독한 후 이항영 목사가 여호수아 3장1절-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며, 끝까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조했다.

이후 스캐리포니아 주정부와 학교에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도록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 되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등의 내용으로 합심기도하고 이화영 목사의 축도로 사우스베이 목사회 3월 정기 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행사를 주최한 남가주기쁨의 교회가 식사를 제공하였다.

사우스베이 목사회 기사 제공



#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 세계 기독교 박해국 84% “여성의 강제 결혼 위협 만연”



미성년 강제 결혼 위기에 내몰려 있는 아프리카 여성들. ©Compassion UK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오픈도어 선교회(Open Doors)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강제 결혼이 전 세계 기독교 여성들에게 우려할 정도로 흔한 관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픈도어 글로벌 연구팀이 집계한 '2024 성(性) 보고서'는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50개국에 사는 기독교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는 성별과 기독교 신앙 때문에 겪는 억압과 폭력을 강조하며, 2024년 세계 감시 목록(WWL)에 포함된 50개국 중 84%에서 강제 결혼이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카메룬 지역 내 무력 충돌과 종교적 긴장이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은 폭력과 착취의 위협이 더 커진다”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민간 마을을 공격하는 무장세력에 의해 강간과 강제 결혼을 당할 위협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 지역 전문가는 “납치된 소녀들을 성 노예로 삼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도어 미국 지부의 CEO인 라이언 브라운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3억 6천5백만 명 이상이 예수를 따르는데 매일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학대,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신실한 신자들 중 상당수는 용기 있는 여성들로, 아내, 어머니, 자매, 딸 등이며 이들은 탄압과 잔혹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복음에 충실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박해 국가에서 기독교 여성이 겪는 5가지 주요 학대로 강제 결혼, 성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및 납치를 열거했다. 또한 보고서는 여성들이 WWL에 포함된 국가에서 신앙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여성들의 취약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오픈도어 미국 지부 최고운영책임자인 사라 킹햄은 “이러한 용감한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예수에 대한 불굴의 믿음을 더 많이 목격하고 있다”며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도 기본적인 인권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비추며,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들은 “역사적으로 평화 노력이 남성 중심적이고 세속적이었으나,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여성이고 대다수가 종교적 연대를 가진다는 점에서 포용적인 평화 과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회라는 독특한 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이 가진 전략적 지위를 통해 변화는 가능하며, 실제로 이미 진행 중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픈도어는 전 세계의 교회에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도어 미국 지부 성폭행 전문가인 헬렌 피셔는 2019년 CP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 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박해가 그들의 성적 순결을 훼손하고, 남성은 경제적 학대를 당해 사회적 지위를 잃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강해진 기자

# 낙태권 헌법 수록한 프랑스, 이번엔 ‘조력 자살’ 법제화 시도



관련 보도 화면. ©EBS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한 프랑스가 이번에는 ‘죽을 수 있는 권리’ 입법화에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조력 자살(助死, assisted suicide)’ 또는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 일(이하 현지시간) 일간 라 크루아,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5월 중 조력 사망에 대한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특정환, 그리고 엄격한 조건에 한해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인에 한해 말기 암처럼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미성년자나 알츠하이머 정신질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력 사망’ 방식은 의료 전문가 동의 하에 처방된 치명적 약물을 환자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조력 자살’이어서, 찬반 논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직접 하기 어려울 경우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환자 요청을 받은 의료 전문가는 15일 내에 응답해야 하고, 이후 승인되더라도 3개월 내에 환자는 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는 이는 사실상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현재 유럽 스위스를 비롯해 벨기에와 네덜란드(2002년부터), 룩셈부르크(2009년)와 스페인(2021년) 등에서는 ‘조력 자살’ 또는 ‘적극적 안락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강해진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에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차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 오전 6시  
3부예배(사세대) 오전 11:30 (화-토)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 목요일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인(2)자를 책임지며, 이인(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386-2233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Youth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할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평민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00

수요 오전 중부기도회 오전 9: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토요 한국학교 오전 9:30  
영유아부 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중부기도회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일예배 오후 7:30(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 새벽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주일학교(초,중,고) 오후 8:00  
한글학교(초,중)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 오전 10:00 하트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현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교중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트럼프에 대한 복음주의자들 시선, 8년 전과는 다르다



미 복음주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그를 위해 기도하던 모습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과거 그를 지지했던 현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선 그런 변화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던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현지 복음주의의 교계의 지지는 상당했다. 그것이 대선에서 그가 승리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에 염증을 느낀 복음주의계가 미국의 전통 기독교 가치의 편을 드는 트럼프에게 열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여러 면에서 보수적 정책을 폈다.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적 연방대법관을 임명했고, 이스라엘을 지지했으며, 동성애 등 소위 LGBT 문제에 있어서도 우호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주요 참모들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들로 임명했다. 특히 그가 재임 시절 백악관 인근 성요한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복음주의의 유권자들의 열망을 대변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4년 전 2020년 대선에서도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이 그에게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이런 분위기는 큰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이 그의 대선 승리를 위해 본격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한 매체에 따르면 기독교계 보수 단체인 '신앙과 자유'(Faith & Freedom)는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권 행사 운동 등에 상당한 돈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의 기독교인의 약 4분의 3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현지 복음주의계의 트럼프 지지의 그의 집권 당시 때보다는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독교에 우호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의 기독교 관련 수사와 행보는 단지 '표'를 위한 정치적 행동일 뿐 진정성이 없다는 것 등

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서 그의 정책이 당장 기독교 친화적일 수는 있어도, 결국 기독교 가치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자주 지목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nationalism)인데, 이것을 기독교 가치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 백인 복음주의의 개신교 신자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종교 보다는 정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견해도 있다. 또한 미국 복음주의의 신학자로 유명한 웨인 그루덤(Wayne A. Grudem) 교수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경선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고, 재임 시절 그의 행정부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면 서도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선 공화당이 다른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후보가 되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많은 만큼 그 반대자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트럼프 지지의 인물에 대한 선호라기보다 그 정책 때문인데, 미국 사회에서 마치 '영웅'이 등장한 것처럼 트럼프라는 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수록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는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복음주의자들이, 보다 '리버럴(liberal)'하고 친 LGBT 행보를 보이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더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여론도 상당하다. 미국에 안보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고 자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아울러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했던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세계선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영 기자

## 바이든, 국정연설서 낙태 합법화 판결 회복 공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국정연설에서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은 "로 대 웨이드가 옳았다"고 주장하며, "낙태 권리를 다시 이 땅의 법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 약 50년간 미국 여성의 낙태권을 임신 6개월(약 22~24주)까지 인정해 온 판례로, 2022년 폐기됐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된 점을 상기시키며 트럼프와의 대비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상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대해 자랑한다"며 "낙태 보호를 뒤집는 것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능력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도 바이든은 "올해도 낙태가 투표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구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중교등부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창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30(토)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m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몰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교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야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평일) 새벽 5:30  
(평신도교과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희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트랜스젠더 논쟁에 대해 신자가 알아야 할 5가지



© Ian Taylor/Unsplash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가 '트랜스젠더 논쟁에 대해 모든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칼럼을 소개했다. 이 글을 쓴 앤드루 T. 워커(Andrew T. Walker)는 미국 남침례교 산하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정책 연구 책임자이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트랜스젠더리즘에 반대한다고 해서 성별불쾌감으로 인한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트랜스젠더리즘을 둘러싼 문화 전쟁의 정치적 측면과 성별불쾌감(gender dysphoria)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성별불쾌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느낌)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감정적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성별을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는 문화적이고 법적인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별불쾌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그곳에 있고, 그들을 경청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깊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없다

트랜스젠더 운동의 가장 큰 주장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실제로 여성일 수 있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라는 것이다. 이는 선호하는 대명사, 성전환 수술 및 주어진 성별이 아닌 인식된 성별의 화상실 사용을 요구하는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는 철학적 주장이라는 점이다. 남자 염색체는 여자 염색체로 조작될 수 없다. 미용이나 수술로 외모를 바꾸는 것이 개인의 생물학적 구성의 근본적인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마음의 심리학은 사람의 생물학적 표지자를 무시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 혁명은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거짓말을 믿도록 요구한다.

3. 성경은 트랜스젠더 혁명을 이해하

는데 필요한 틀을 제공한다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사람들이 성별불쾌감을 경험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 세계관은 피조물의 붕괴가 있었고, 이전과는 다르며, 새로운 창조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창세기 3장, 로마서 8장, 계시록 21장). 우주에서 우리 존재의 어떤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피조물의 깨어짐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 우리의 정신과 마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 정도와 방식은 달라도, 모든 인간은 우리 자신의 육체, 욕망 및 생각의 깨어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언젠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4. 트랜스젠더 논쟁은 남성과 여성, 엄마와 아빠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남자 또는 여자가 되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이나 의지로 결정된다면, 이는 진정한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다 문화적 고정관념에 기초한 구성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어린 소년에게 그가 진짜 소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어린 소녀에게 아버지로서 그녀에게 보이는 아버지의 독특한 반응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5. 기독교인들은 트랜스젠더 논쟁에 있어 확신과 연민이 모두 필요하다

트랜스젠더 논쟁은 논란의 소지가 가득하다. 이 논쟁에서 성경적 확신을 가지는 것은 친구, 가족 및 동료들과의 갈등을 의미한다. 게다가 어떻게 표현하든, 우리는 혐오자, 편협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다는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번영을 위한 참된 비전을 옹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부한 설명이나 반사적인 반응은 피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그분께 있음을 계속 말해야 한다. 김유진 기자

강혜진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디노비자)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 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일도미오 오전 10: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 570-1610 (교회), (714) 853-4030(담임목사)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중교동부(가미)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만용)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주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 AM 영아유아 유치부 11:15 AM  
주일 2부 9:30 AM 주중교동부 9:30 AM/11:15 AM  
주일 3부 11:15 AM 새벽예배 월-토 5:30 AM  
수요기도회 7:30 P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중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성경학교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요일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동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동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Quen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예배 오전 11:00(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www.woorjoeu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美 대형 약국서 경구용 낙태약 판매...친생명단체들 “강력 반대”

미국의 양대 약국 체인 업체인 CVS와 월그린스가 경구용 낙태약을 판매한다고 밝힌 가운데, 친생명 단체들이 강력 반대에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일 CVS와 월그린스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州) 내 매장들을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CVS 대변인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의 모든 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주요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월그린스 측도 “뉴욕,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0년 처음

으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미페프리스톤은 수십 년 동안 자격을 갖춘 의사가 조제해야 했으나, 이번 달부터 언제든지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친생명 단체들은 이 낙태약에 대해 “태아의 생존에 필요한 호르몬을 빼앗아 장기간 고통스러운 수축을 유발하고 유산에 이르게 한다”며 약국 내 판매를 비판했다. 미국의 가장 큰 친생명단체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의 정책 이사인 케이티 다니엘(Katie Daniel)은 성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신뢰받는 두 ‘건강 브랜드’가 낙태 약물을 판매하기로 한 결정은 수치스럽다. (이 약물이) 태아와 산모에게 미치는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inex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수증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법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Junimedia**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합술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합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합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 켈로부대 멸공 통일 선봉에 섰다!



왼쪽부터 박동우(명예 해병), 박태경(미 해병 중위출신), 마선홍(한국전 참전 한국 육군 중위), 토니 박(미 재향군인회 한인 829지부 사령관) ©기독교일보

### 켈로부대 출신 마선홍 용 100세 맞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

한국전 참전 용사 마선홍(당시 육군 중위 출신)이 플러튼시 소재 한국전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오는 4월 100세를 맞이하는 마선홍 용은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념비를 방문 “갑회가 깊고 기념비 앞에서 참전당시를 회고하니 감개무량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말을 흐렸다. 켈로부대 하면 세기의 유명 작

전 “인천 상륙 작전”을 생각한다. 이 작전의 성공은 클락 미 해군 소위, 계인주 한국 육군 대령, 연정 해군 소위 그리고 최규봉 켈로 부대의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라”라는 (암호)명령을 하달받아 성공적으로 실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켈로부대 용사들은 총상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등대를 밝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박동우 수석 보좌관은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시절 백악관 직속 장에 정책 차관보로 임명받아 워싱턴 D.C.에 방문 그 당시 한국전 참전 재향군인 기념비에 단 한 명의 희생 용사의 이름이 새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2021년 11월11일 68년만에 36,591명의 희생 미군 용사들의 이름을 모두 새긴 기념비를 세워 국격에 맞는 한미 동맹 70주년에 걸맞는 기념비를 준공했다. 박수석 보좌관은 이날 마선홍 씨의 기념비 헌화에 엄숙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 ‘철제 폐’ 속에 지낸 美 남성, 78세로 사망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린 후 70년 이상 철제 폐(아이언 렉) 속에서 살아온 남성이 7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신앙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온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2일 폴 알렉산더(Paul Alexander)의 가족은 고펠드미페 이지를 통해 그의 비보를 알렸다. 모금 활동가 크리스토퍼 울스터(Christopher Ulster)는 “폴,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폴 알렉산더는 6살 때인 1952년 소아마비에 걸려 전신이 마비된 탓에 철제 폐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실린더 모양의 이 기기는 내부의 압력을 높이거나 낮춰 환자의 폐를 확장하거나 수축시켜 호흡하게 한다. 이 기구는 1920년대에 발명됐는데, 소아마비 백신이 1955년에 널리 보급된 후부터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상태가 악화돼 철제 폐 밖에서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소년 시절 학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입에 붓이나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으며, 철제 폐 밖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훈련을 하면서 끝내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폴 알렉산더. ©유튜브 영상 캡처

4~6시간을 철제 폐 밖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그는 1978년 텍사스대학교에서 경제학학사 학위를, 1984년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했다. 그는 마비된 몸을 지탱하는 특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고, 사무실이나 집에서는 철제 폐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맬러스와 포트위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호흡이 힘들어진 그는 다시 철제 폐로 돌아왔다. 그는 입에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8년에 걸쳐 자서전을 저술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틱톡에 ‘아이언렐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일상도 공개해 왔다. 그의 동영상 페이지는 약 33만 7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에피소드 1’ 게시물은 약 5,6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2018년 지역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법 같은 사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은 ‘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고 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몸이 마비된 지옥 같은 경험을 겪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부모가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을 통해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알렉산더의 동생인 필립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은 매주 교회에 다녔는데, 형은 십자가 앞에서 울고 또 울었다”며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회상했다. 강혜진 기자

## 미국 내 목회자의 사역 자신감 회복세

미국의 복음주의 여론조사기관 바나 그룹(Barna Group)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서 목회자들 중 직업에 대한 불만이나 소명에 대한 회의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복세는 특히 나이 든 목회자와 남성 목회자들 사이에서 뚜렷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신 보고서인 ‘목회자의 상태, 제2권’에서 발표된 데이터는 월드비전(World Vision), 브러더후드 뮤추얼(Brotherhood Mutual), 라이트나우미디어(RightNow Media), 월드임팩트(World Impact)와의 협업을 통해 수집되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미국 개신교 담임목사들을 대상으로 523건의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목회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보다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바나 그룹의 이전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는 목회를 시작했을 때보다 자신의 소명에 “더 자신감을 가진다”고 답한 목회자는 35%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이 비율이 51%로 증가했으며, 또 다른 39%는 “그 당시만큼 자신감을 가진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소명에 대해 “자신감이 덜 하다”라고 답한 목회자의 비율도 2022년에는 14%였으나, 2023년에는 9%로 감소했다. 또한 남성 목회자의 51%, 여성 목회자의 53%, 45세 이상 목회자의 52%가 자신의 역할에 “자신감을 가진다”고 보고했으며, 45세 미만 목회자 중 절반(50%)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자신의 소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목회자의 비율 또한 2022년 52%에서 2023년 59%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소속 교회에 대한 만족감도 증가했다. 2022년에는 목회자 중 38%가 자신의 교회에 “매

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2023년에는 47%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나이 든 목회자의 50%와 남성 목회자의 49%가 현재 사역에 “매우 만족한다”고 보고했지만, 젊은 목회자는 38%, 여성 목회자는 32%에 그쳤다.

연구진은 “목회자들의 직업 만족도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의 반동이 격차를 줄이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목회자의 확신과 만족감의 긍정적인 증가는 지난 1년 동안 전임 목회를 떠날 것을 고민한 목회자의 수가 변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임 목회 중단을 고려한 목회자의 비율은 2022년 3월 42%에서 2023년 말에 33%로 떨어졌다”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장기적인 불안정한 상황을 겪은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기쁨으로 읽는  : 마태복음, 제자 되기 (10)

# 산상수훈, 첫 번째 복



김영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거꾸로 가면 위험하다. 비행기가 뒤집어진 채 배면비행(背面飛行)을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 더구나 그런 일이 밤중에 일어나면 끔찍한일이 벌어질 것이다.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사사건건 고집을 부리고 아무하고나 충돌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꾸로 다닌다고 원망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다. 바로잡아 주는 일도 쉽지 않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반듯한 인간을 지으셨다.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와 교훈도 주셨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위협을 경고하셨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인간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배상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다. 영원한 죽음이다.

어떻게 하면 배면비행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을까? 누가 죽음의 길에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온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빠른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마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4:25).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5:1,2).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무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 ‘보셨다’는 행위와 ‘올라가셨다’는 행위 사이에 가느다란 불연속선(不連續線)이 보인다.

갈릴리 동편 거라사의 마을에 올라가면 호수를 향하여 솟아오른 절벽이 있다. 골란 고원의 서쪽 끝이다. 그곳에 있는 낮은 돌담에 걸터앉아 호수 건너편의 가버나움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한나절을 보낸 적이 있다.

마침 맑은 날씨여서 호수 건너편의 먼 산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에는 이제 몇 개의 기념교회만 남아 있다. 가버나움의 뒷산으로 눈길을 주면 밋밋하게 올라가는 지형들이 펼쳐진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그 낮은 산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아마도 무리들은 산 아래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을 보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다. 제자들에 계만 비유를 해석해주셨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셨다. 무리들 가운데는 장차 제자가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셨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다. 그러나 마태는 그 교훈을 5장부터 7장 사이에 잘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다른 두 복음서들과는 달리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시점도 이 교훈 이후에 두고 있다. 이 단계를 지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제자가 되는 길로 들어가 보자. 제자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마태 자신의 신앙간증이다. 마태는 그날 산 위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덟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눈과 비를 피할 집 한 칸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라는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심령’은 우리의 ‘영’을 말한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A. Wilard)는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 ‘영혼의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고 표현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실존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인간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용어다. 이 폐기 처분된 영혼을 되살려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단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멸망당했던 사람,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와 악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던 사람, 멸망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은혜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심령의 가난함이 드러난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이 처한 영적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 없이 가난한 심령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적 위선이다.

## 강태광 칼럼

# 생명 살리기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

지난 2월 17일 새벽 250명의 남가주 지도자들이 “제10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로 모였다. 1부 기도회 후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를 위한 주민발의 청원서 서명운동”을 의논했다. 첫 연설자로 사신 사람은 주민발의 청원서 공동발의자 에린 프라이데이(Erin Friday) 변호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털어놓았다. 골수 민주당 당원이었던 에린 프라이데이는 종격적 사건을 경험했다. 그녀는 코로나 시절 딸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것을 알았다. 딸은 학교 성교육 시간을 통해 자기 성적체성을 의심하며 헛갈리기 시작했다. 학교 교육을 받을수록 딸은 혼란스러워했고, 스스로 잘못 태어난 인생으로 규정했다. 딸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다.

무서웠다. 점점 변화가는 딸도, 이런 딸을 부추기고 딸을 더 이상하게 몰아가는 학교도, 어머니의 개입을 막는 캘리포니아 법도 무서웠다. 그녀는 변호사 활동을 포기하고

온 힘을 다해 싸웠다. 엄청난 재정적 손해와 많은 상처를 남긴 채 겨우 딸을 되찾았다. 에린 프라이데이 변호사와 딸 그리고 온 가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안은 채 회복해가는 중이다.

프라이데이 변호사는 자신이 지지했던 법과 싸우며 망연자실했다. 자신의 딸을 지키려는 엄마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지지했던 민주당이 만든 법과 싸우기 위해 공화당원들과 더불어 자녀 보호를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프라이데이 여사는 다음 세대와 생명살리기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그녀는 생명 살리기 운동 중이다.

LA 지역에 사는 에비게일 마티네즈(Abigail Martinez)라는 여성은 딸 얘기만 하면 눈물을 멈추지 못한다. 마티네즈는 성전환수술을 했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픔을 겪었다. 에비게일은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고 성전환수술을 하겠다는 자녀로

통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에비게일 마티네즈도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며 생명살리기운동을 이끌고 있다.

출애굽기 1장에도 생명 살리기 운동이 나온다. 유대인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산파들이 받았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출1:17).”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 살리기 운동을 했다. 에스터도 동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금식을 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에스터의 야성은 생명살리기운동에서 나왔다.

산파들은 생명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 살리기 운동을 주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 산파들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헌신을 통해 모세가 출생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다. 에스터의 생명 살

리기 운동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었다.

아동보호를 위한 주민발의 신청서 서명운동은 생명 살리기 운동이다. 이 서명운동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냉담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의 소매를 부여잡고 서명을 부탁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생명을 살리는 서명서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강태광 목사(아동보호법 주민발의 서명운동 사무총장)



## 2024 SPECIAL PROMOTION

#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교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 홈쇼핑월드

웹사이트 주소  
hswus.com

## 확장이전 기념 무빙세일

제2탄!!

세일 기간 | 03.15(금) - 03.18(월)

WOW 초대박 물지마 무빙세일!!

NAISTURE  
코리안 뷰티  
마스크 세트

6종  
~~\$12.99~~  
**\$1.99**



\*1인 5세트 한정

새우표  
올리브유  
김자반

60g  
~~\$4.99~~  
**\$1.99**



아쿠아 엑스  
UV 강력차단  
쿨 토시

~~\$5.99~~  
**\$2.99**



두레방  
전통  
청국장

170g  
~~\$6.99~~  
**\$3.99**



매실플러스  
유기농  
매실진액

~~\$16.99~~  
~~\$12.99~~  
**\$8.99**



황성암  
자연건조  
황태깍질

300g  
~~\$14.99~~  
~~\$12.99~~  
**\$9.99**



하심정  
더덕 분말

200g  
~~\$39.99~~  
**\$19.99**



\* 반값 세일

한국 치과협회

아쿠아  
워터픽

100g  
~~\$89.99~~  
**\$29.99**



동원  
침향 공진단

30환  
~~\$129.00~~  
~~\$69.00~~  
**\$35.00**



\*1인 3박스 한정

정관장

홍삼원 골드

60포 (2개월 분)  
~~\$179.00~~  
**\$95.00**



\* 사은품: (2박스 구매시 → 홍삼절편 5분 + 산삼원 10환 무료증정)

바디프렌드 팔콘 로봇 마사지체어  
독점계약체결 기념 가격파괴 세일!!

www.bodyfriend.com

바디프렌드  
팔콘 로봇  
마사지체어

홈쇼핑월드 독점  
특별세일 가격!!

**\$4490.00**

(일시불)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hswUS.com  
youtube.com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하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파크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델번 BANK OF HOPE 뭉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내용 중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진유철 칼럼

새 역사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참으로 귀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와 ‘목사 안수식’과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 감사예배’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은혜를 되새길질 할 때 마음에 계속하여 드는 생각은 ‘감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새 역사, 역전승과 같은 크고 위대한 일들의 시작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 총리대신인 다니엘은 타협 없이 기도하다가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대적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전 신앙을 증거 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절정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최악의 상황을 역전 시킨 것은 ‘감사’였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요나의 기도문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은2:9-10)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가시와 영경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된 인류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강력한 자아를 형성하게 되었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부정적 편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남을 비난하고 원망 불평해야 이기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감사가 좋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죄성의 본능 때문에 감사를 놓치다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감사치 않을 때는 예외 없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죄성과 원수마귀를 믿음으로 이기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내는 것

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명사적 의미로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고 하며, 동사로는 ‘숙고한다.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고 생각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일’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일에는 언제나 양지와 음지가 있습니다. 큰 행사들을 하면 더 분명하게 양지의 일들과 음지의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양지로 음지를 덮어 감사하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문제에 마음과 입술을 빼앗겨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 역사는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양지와 음지, 긍정의 일과 부정의 일,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의 기적을 체험한 나병환자 10명 중, 9명은 그냥 가버렸지만 한 명은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적극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 감사 때문에 절망적인 인생에서 영광의 인생으로 역전승하는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희년의 성화를 통해 큰 은혜와 기적, 많은 수고가 있었을지라도 결국 새 역사의 시작과 역전승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됨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남가주 단신

▶아이들보호법 주민발의안 청원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교회마다 서명을 위한 부스가 설치되고, 마켓(부에나팍 시 온마켓, LA 김스전기 등)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청원서는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등을 골자로 한다. 문의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 실행위원장 강순영 목사 (310-995-3936)

▶ 3/16(토) 정오부터 3시까지 월셔 에퀴터블 14층 (3435 Wilshire Bl. #1400, LA, CA 90010)에서 <영화 룯기 제작 설명회>가 진행된다. 강사는 뮤지컬 감독으로 활동하고 영화 제작에 도전하는 최혁대만 선교사.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창립 41주년을 맞아 이상준 목사(현 1516 교회 담임, 전 양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초청 부흥성회를 3/15(금)-17(주일)까지 열고, 3/17(주일) 오후 4시에는 임직 감사예배를 드린다.

▶기쁜우리교회는 3/16(토) 오후 7시에 본당에서 LA 챔버 콰이어 (지휘: 이정욱 장로) 콘서트를 연다.

김인수 칼럼

교회와 예배당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

관광객들이 L.A.에 오면 꼭 들리는 명소 몇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비롯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면 꼭 가봐야 할 곳이 Orange County, Garden Grove 시에 있는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입니다.

수정교회는 유명한 설교자인 Robert Schuller 목사가 1955년에 설립했으며, 현재의 유리 건물은 1977년부터 1980년에 걸쳐 건축가 Philip Johnson이 설계하고 건축했습니다. 이 예배당은 10,000개 이상의 직사각형 유리 창문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건축 비용이

1,7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약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예배당입니다. 건물은 LA 지역에 자주 일어나는 지진에 대비해서 8.0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耐震)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드라이브인 대형 스크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부는 기둥이 전혀 없고, 철근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1만 개의 유리창이 수정(水晶:Crystal)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예배당은 많은 한인들도 결혼식을 올리고 음악회를 열기도 하며, 여러 행사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Schuller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아들이 이어 목회를 했으나, 실패 치 않아 몰락가고, Schuller 목사의 딸이 목회를 했지만, 결국 재정난에 부딪혀 예배당을 매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가톨릭교회 오렌지 교구가 2012년에 5,770만 달러에 수정교회를 구입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재정난으로 예배당을 팔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개신교 쪽에서 보면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목회할 때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고, 현금이 많이 나와 재정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

난 후에 자식들이 유명 목사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교인들의 숫자는 줄고 현금도 따라서 줄어 교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톨릭교회가 이 예배당을 인수해서 성전으로 사용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무슬림들이 그들의 엄청난 재력으로 수정교회 예배당을 구매 한 후, 십자가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그들의 상징인 초승달을 붙이고, 금요일에 그들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기독교회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많은 예배당 건물이 매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을 비롯한 구라과 여러 지역의 성당이나 교회에 교인들이 없어, 예배당이나 성당들이 매물로 나와 무슬림들이 이 예배당을 구매해서, 십자가를 떼어내고 초승달을 달아 놓고, 주일날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무슬림들이 모여 알라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찬란하고 아름답던 성전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소멸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왕이 건축

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도 주후 70년 로마의 Titus 장군에 의해 불에 전소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예배당들이 화재로 불타고, 지진으로 무너졌으며, 심지어 십자가의 첨탑에 벼락이 떨어져 예배당이 무너졌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머리와 몸인 교회는 세상이 끝 날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선교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세운 예배당은 언젠가 낡아서, 지진으로, 태풍으로, 홍수로, 기타 자연재해와 인재(人災)로 소멸될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에 많은 돈을 드리지 말고, 소박한 건물을 짓고, 남은 돈으로 선교와 구제에 힘 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하지만 예배당은 유한(有限)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회중들이지, 아름답고 찬란한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회와 교회 건물의 사적(史蹟)을 되새겨 볼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찬란한 예배당에 계시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인들 중에 계십니다. 살롬.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62)6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온-오프라인 통합 블랜디드 수업, 6-90 분량 필 리프 장학생도,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신학교, 상담심리학, 전문교양학, 중국어 신학교,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신학교, 선교학, 상담심리학
(562) 926-1023, ext. 300 www.pts.edu
주소: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race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회학(MA ICS), 목회학(M.Div), 신교회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기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락
MATS 신교회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기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112/admin.kor@itsla.edu

#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 기독교는 정신 질환자를 정말 도울 수 있나?



##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 정신 질환

데이비드 머리와 톰 카렐 2세 | 소현수 역 | 부흥과개혁사 | 286쪽

데이비드 머리(David Murray)는 2007년부터 청교도 개혁신학교에서 구약학과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전문 카운슬러이다.

톰 카렐 2세 (Tom Karel Jr.)는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기독교 정신건강센터인 파인레스트 소속 심리학자다. 기독교 조직을 신앙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페이스공동체 봉사 단체 (FCO)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신 건강 환자의 간병인에게 유용하다: 가족, 친구, 교회 지도자에게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조언을 해 준다.

솔직히 말해, 신학교에서 '정신 질환'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성도나 성도의 가족을 만나거나, 잠시 대화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담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목사 혹은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실 그 '전문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세상은 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명백한 죄의 문제를 병으로 취급한다. 가령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변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도, 아픈 사람이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다.

그렇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를 성경 말씀으로 때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돌봄 외에 약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가족과 교회와 사회가 담당해야 할 일도 있다. 정신 질환과 기독교가 함께 들어간 책을 만날 때, 먼저 경계심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 앞서 말한 복잡한 상황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책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신 질환을 의학적 문제로 분류하고 약물과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추천하면서 신앙적 도움을 하나의 보충제 따위로 취급하거나, 반대로 정신 질환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죄의 문제로 여겨 정신 질환을 앓는 성도의 고통을 공감하고 동정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한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 정신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저자인 데이비드 머리 때문이다. <리셋하라!>(디모데, 2019), <우리 가족 성경 탐험>(두란노, 2021) 등을 통해 건전한 신학을 선보인 머리

를 성경적 상담학 대가인 에드워드 웰치가 추천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부제처럼 '30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돼 있다. '정신 질환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정신 질환의 종류, 정신 질환이 환자 본인, 영적 생활,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신 질환의 원인, 돕기 위한 목사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 가족과 친구의 역할, 정신 건강 전문가의 역할, 약의 역할, 성경적 상담사의 역할, 환자의 역할, 환자의 영적 성장을 돕는 법, 환자가 교회에서 섬기도록 돕는 법, 환자를 제자로 양육할 때의 어려움, 환자를 섬길 때 피해야 할 점, 정신 질환의 대비와 정신 질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 등을 다룬다.

에드워드 웰치는 "이 책 덕분에 언덕 위의 빛이 조금 더 밝아질 것이다"라고 추천사를 남겼는데, 실제로 이 책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성도를 이해하고 돕는 일에 있어서 눈앞이 캄캄했던 독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입문서가 될 것이다. 특히 두 저자인 데이비드 머리와 톰 카렐 2세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린(15쪽)" 경험이 있다. 직접 경험한 자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으로 이 책을 알차게 구성했다.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신 이론이 나오지 않는다. 오직 성경적 진리에 근거를 두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지침만을 다루고 있다. 각 장 마지막엔 요약과 실천 과제가 제공되고, 저자가 각각 경험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책 전체를 읽어 정신 질환에 관한 큰 그림을 얻고, 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각 장을 선택하여 더 자세히 공부하고 참고할 자료



©픽사베이

로 이 책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저자들의 믿음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질환을 사용하시어 선을 이루실 것이며, 질환을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다. 또 저자들은 이 일이 단순히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이들의 노력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가족·친구·성도·목사) 모두 함심하여 함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리고 자주 정신 질환을 겪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다. 멘탈이 약하다고 지적하거나, 영적으로 연약해서 혹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의 문제를 겪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하지만 누구나 정신 질환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돕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바르게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그 분이 계획하신 선을 이루실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에 우리가 사용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 일을 조금 더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머리와 카렐이 쓴 이 책을 읽어보라. 분명히 더 잘 준비되어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사순절 묵상 | 이해원



## 3월, 작가들의 말말말

### ■ 커트 톰슨-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

고통은 특정한 아픔과 함께 시작되지만, 아픔이 고통이 되는 것은 그 아픔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상태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하지만 과감히 사랑을 받아 들임으로써만 우리는 지속성 있는 소망을 품게 된다. 처음에 이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우

리를 찾아 오시는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이란 다른 누군가가 사랑으로 함께해 줄 때 이에 화답해야 생겨난다. 소망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내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환경에서, 함께 형성해 가는 이 지속성 있는 소망, 누군가 늘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찾으러 오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는(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기대에 찬 미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육의 경

우가 그러했듯, 하나님은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 다만 고통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통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고통을 통제하며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책임지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 고통을 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초긴급!!!**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

11월 선거에 주민투표 발의안 상정을 위한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California의 악법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 하고

**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주민 발의안이 통과 되면?**

- 안전:**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사위실/라커룸을 **출생성별**로 사용하게 함
- 공평:**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 불허**
- 학부모 권리 보호:**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 타고난 성별 보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수술금지**
-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 금지

**몇 개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유효 서명 숫자: 550,000개**
- 무효화 될 서명들을 고려하여, **총 700,000개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 한인 커뮤니티 서명 숫자 목표: 70,000개 이상**의 싸인
- 한인 서명 마감: **2024년 4월 13일**
- 서명용지 및 설명서 보급장소  
**OC:**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사우스베이: 토렌스 조은교회  
**LA:**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LA 동부: 선한목자교회(Chino hills)

서명에 관한 안내나 서명용지를 받기 원하시면 서명운동본부 (310-995-3936, 323-578-7933)나 TVNEXT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서명운동본부**

**고문:** 송정명, 김영길, 한기형, 최학량, 최홍주, 민종기, 김인식 (이상 목사)

**대표대화장:** 한기홍

**공동대화장:** 강준민, 고승희, 고창현, 고태형, 고현중, 구봉주, 국윤권, 권혁민, 김경진, 김기동, 김기섭, 김우준, 김종규, 김준식, 김지훈, 김태형, 김현오, 김호용, 남강식, 남성수, 노창수, 민경명, 박규성, 박성규, 박성근, 박용덕, 박은성, 박현성, 방상용, 백정우, 손창민, 송병주, 신동철, 신승훈, 신원규, 안 환, 오명찬, 우영화, 윤대혁, 이 서, 이영선, 이정현, 이종우, 임성진, 주혁로, 지용덕, 진유철, 최성광, 최 혁, 최형규

**각지역 대표:** 최영봉, 박재만, 이필성, 오기현, 박선호, 김우준, 전지승, 류수열, 김형길

**지도위원:** 남가주지역 모든 담임목사

**자문위원:** 김태오, 세라 김 (TVNEXT 대표, 408-309-4084)

**실행위원장:** 강순영 (310-995-3936), 심상은 (714-722-4805)

**사무총장:** 강태광 (323-578-7933)

# 룻기 '영화'화,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메시지 전할 것

순복음교회 주일 성가대 지휘자, 뮤지컬과 다양한 공연의 감독으로 활동했던 최혁 대만 선교사는 뮤지컬 감독으로서의 경험과 대만 선교사로 목회의 경험을 함께 녹여 영화 제작에 도전한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0년 1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대만 선교사가 된 후에도 음악 사역을 놓치지 않았다. 2015년 뮤지컬 희생(Musical sacrifice), 2016년 뮤지컬 약속의 땅(Musical Promise Land), 2017년 2018년 대만 뮤지컬 사명(Musical Mission), 2019년 기독교100주년기념관 (생명의 도장) 제작 및 총감독을 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의 모든 사역이 막혔다.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하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날, 한 성도가 그를 찾아와 그분의 전 재산과 같은 돈을 건넸고 그것이 영화 제작의 씨앗이 되어 이후 영화 작업을 가능하게 했다.

"저희 교회의 가난한 과부의 돈을 가져다가 제 앞에 갖다 놓게 하셨다. 3천 5백 달러 정도의 돈이었다. 그 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없지만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영화 <룻기>제작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왜 하필 룻기일까? 지난주 금요일, 영화 룻기 제작 설명회를 위해 LA를 찾은 최혁 선교사를 만나 룻기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와 이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들었다.

### ▶룻기로 정한 이유?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한 몸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룻기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예표가 들어가 있는데 룻기의 전후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보아스의 엄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라합이라는 여자이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던 것처럼, 라합의 가정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의 모든 백성이 죽는 상황에서 보존된다. 두 명의 정탐꾼 중 살몬과 결혼해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다. 보아스를 알아야 룻기가 해석된다.



최혁 선교사 (룻기 원누맨 영화감독). ©기독교일보

### 3/16(토) 정오~3시, 월서 에퀴터블에서 제작 설명회 룻기에 대한 오해 풀기 위해 유대인의 회복과 이방인과 하나됨에 관한 메시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된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아들이 이방 땅의 여인들과 결혼한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죽는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집으로 보낼 때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떠나지 않는다. 이후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룻은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낳다가 보아스를 만난다. 그때 계대 결혼이 있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척이 있었다. 그가 첫 번째 기업 무를 자였다. 기업을 문다는 이야기는 땅을 사서 자손이 이어지게 주겠다는 것이다. 갑자기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무를 자에게 한 가지를 추가한다. 이방 여인 룻에서 그 땅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첫 번째 기업 무를 자는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며 포기한다. 이것을 보고 첫 번째 기업 무를 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이다.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내 친척의 기업을 무를 수는 있지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 무를 자는 철저히 율법을



Ruth One New Man trailer ©유튜브 스크린샷

지킨 자이다.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이다. 그런데 보아스는 반대로 룻을 아내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 보아스는 율법을 어겼고 첫 번째 기업 무를 자는 율법을 지켰다.

왜 보아스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을까?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 그는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면서까지 이방여인과 결혼했다.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예표되었고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초림하는 통로가 된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one new man 엠2:15)을 이룬다고 말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룻기의 모든 얘기를 끝어다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을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간 적이 이천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이 독립된다. 그때까지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인 집단이 기독교이다. 바울이 한 몸이 될 거라는 예언과 전혀 다른 역사였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독교에서 돕기 시작했다. 룻기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질문할 수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룰 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세상의 종교에는 경전이 있다.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 성경 안에는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예언은 성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지 확인하려면 예언이 성취되었나 확인해야 한다. 많은 불신자들에게 '의심하라.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예언의 90% 이상이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이 교회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아니다. 신사

도 운동이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제가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복음을 못 들었는데 무슨 지구 반대편의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합니까?'라는 반문이다. 그럼 제가 묻는다. '바울이 이웃 전도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했다면 우리는 바울을 모른다. 중학교 때 불교 학교를 다녔는데 수요일에 불교 시간이 있었다. 스님이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야 복받는다'고 가르치셨다. 끝나고 수요일 예배를 가면 목사님이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다. 중학생 때, '똑같은 얘기네'라고 생각했다. 어느날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하시'를 보고 깨달았다. 성도들이 역사를 잘 모르니 맹신하는 게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는 게 복음인데 그런 얘기를 잘 안한다."

최혁 선교사는, 춘향전을 서양에서 가져가서 '얼녀' 가치관을 빼고 엉뚱하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춘향전이 아니듯, 룻기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룻기가 왜 들어가 있어?'라고 묻는다.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까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들이 거기 있다. 그런데 쪽 가다가 난데 없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 나온다. 중간에 관계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처럼 보이는데 누구도 설명을 잘 해주지 않는다. 이 영화가 메시지가 잘 전달되면 과급력이 있을 것이다."

### ▶영화 작업은 어느 단계인가?

촬영은 거의 다 마쳤으며 편집과 CG 작업 등 후반 작업이 남아 있다. 개봉은 내년 60개국에서 할 예정이다.

### ▶LA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LA에 18일까지 머문다. 3월 16일 정오(12시)부터 3시까지 월서 에퀴터블 14층(3435 Wilshire Bl. #1400, LA, CA 90010)에서 <제작 설명회>를 진행한다. 주디 한 기자 제작 세미나 일정  
장소: 3435 Wilshire Bl # 1400 (월서 에퀴터블 14층) LA CA 90010  
시간: 3/16 (토) 정오 12시(중식제공), 오후 1시~3시까지  
문의 카톡 ID: list3396 / 미국 213-700-8821

A Passion Cantata

크렌셔장로교회 수난 칸타타

## 십자가사상의 수일연

**2024. 3. 29(금) 오후 7시 30분**

지휘자 : 이영두  
반주자 : 박지민  
합창 : 크렌셔장로교회 성가대  
솔리스트 : 김미정 (소프라노)  
                  강준현 (테너)  
                  김종현 (바리톤)

장소 :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 LA, CA 90019  
문의 : 한현중 목사(213-407-1600)  
          이영두 장로(310-991-1013)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건국전쟁> (2)

# 진정한 '기독교 독립운동가' 이승만과 <건국전쟁>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

### ◆일제와 기독교: 기독교를 멸시하고 증오했던 일제 정권수뇌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중심으로 1940-1960년대 한국 현대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흥행에는 기독교인 관객들의 호응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중대형 교회에서 단체관람을 했고, 개인적으로 관람한 기독교인 관객들 수도 상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 영화 <건국전쟁>에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이나 당시 기독교계의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계에서 이 작품에 환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기독교계의 생존과 부흥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는 우리 기독교계 전반이 보수 및 반공 정치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이다.

한국 기독교계는 일제강점기 후반 암흑기를 거쳐야 했다. 무엇보다 일제의 무모한 진주만 폭격과 태평양 전쟁 발발은 한국 기독교계 전반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다. 한국 기독교는 언더우드·아펜젤러 등을 필두로 여러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 덕분에 기반을 마련했다. 이 선교사들은 미국 교계의 지원을 이끌어내, 한국 근대화와 인재 양성을 주도했다.

일제 수뇌부 입장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끈질기게 여겨지는 존재였다. 당시 일본 정권 수뇌부는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일왕을 중심으로 조정을 구성한 공경 출신 세력, 육군을 장악한 조수 번벌 세력, 그리고 해군을 장악한 사쓰마 번벌 세력,

이들 세 세력은 치열한 정치적 암투를 벌이면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 동의하며 협력하는 사안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제국주의 패권 장악, 서태평양 해양패권 장악, 그리고 서구 문화와 종교(특히 기독교)에 대한 예속 극복이었다. 일본에서 기독교(일본에 처음 전해진 기독교는 천주교였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메이지 시대인 1873년 기독교 금교령 해제 전까지, 약 320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근대화와 함께 금교령이 해제되기는 했어도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아온 터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았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정권에 반발하는 반골, 그리고 서구 열강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퍼져 있었다.

게다가 일본이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서구 열강을 의존의 대상이 아닌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서구 선교사들이 전파하는 기독교(천주교와 개신교 모두)에 대한 의구심과 반감이 일본 사회 내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 역시 1801년 신유박해를 기점으로 천주교인들을 극렬하게 박해했지만, 조정이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해 서구 열강에 크게 의존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 덕분에 1880년대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우리 기독교계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이 위기는 미국

### 신사참배 강요, 정치 모략 일환 한국 기독교계 전체 붕괴 위기, 기독교인 반정부 세력 인식 이승만, 신앙부흥 운동 주도해 해방 후 교회 부흥 가장 큰 기여

을 중심에 둔 서구 연합군과의 전면전이 펼쳐진 태평양 전쟁 시기 가장 심각한 국면을 맞이한다.

### ◆이승만과 기독교: 신사참배 강요로 무너진 교회를 보살핀 독립운동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본질상 종교분쟁이 아니라 정치 모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들이란 서구 열강의 앞잡이이자 반정부 세력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이들이 일제에 충성한다는 증거로 그들이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우상숭배를 강요했다.

이것은 결정적 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일왕과 일제의 정권 수뇌부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모략으로, 사실상 후미에(일본에서 기독교인들 색출하고 배교시킴 때 사용했던, 예수나 마리아가 새겨진 목판 혹은 금속판)를 한반도 식민지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이미 1920년대부터 조금씩 시작됐고, 193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실시됐으며,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그 압박이 극한에 이르렀다. 이 만행으로 한국 기독교계는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했다. 소수의 귀중한 목회자와 신자들이 도피·투옥·고문·순교를 불사하고 저항했지만, 다수 교회들과 교인들은 일제의 압박에 굴복해 우상숭배에 참여했다.

신사참배 강요의 참상은 신앙의 옥석을 가리는 귀한 계기가 되었지만, 한국 기독교계 전체로 바서는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 박해 당시에도 문제가 컸지만, 해방 이후에도 두고두고 한국교회의 신앙을 잠식하고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사참배에 적극 동참했던 친일 이력 교역자들이 여전히 교단 내부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었다. 교회의 전면적 갱신이 필요하던 시기였다.

해방 직후 한국교회 신앙 갱신과 부흥의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는 기존 한국교회의 문제를 익히 알고 있

었다. 그래서 신사참배와 천황 숭배를 독려하고 친일행각에 참여했던 기존 기독교 교역자들을 적극적으로 지탄하거나 축출하지는 않았지만, 새로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시작될 기독교 부흥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는 해방 후 신앙부흥 운동 주도권을 아예 대통령인 자신이 붙들고 있었다. 그는 미국 선교사와 교계 인사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신사참배와 무관한 새로운 세대의 국내 교역자 양성을 독려하면서, 일제의 정치모략에 물든 한국 기독교를 다시 미국식으로 '청교도화'하는 데 힘썼다.

이로써 일제의 우상숭배 모략에 의해 흔타해진 한국교회의 신앙 상태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신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영화 <건국전쟁>이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을 거의 기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환호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을 비교적 정당하게 재평가하는 일 자체도 반갑지만, 이것을 통해 그가 한국교회에 기여한 공로를 간접적으로 되새겨볼 수 있기 때문인 이유가 더 큰 것이다. 따라서 보수 반공 이념과 기독교 신앙을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행태만 주의한다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건국전쟁>에 대한 호응은 심분 이해되는 일인 동시에 바람직한 일로도 여겨진다. 일제가 한국교회에 강요한 영적 타락의 역사를 되새겨보면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에 크게 공헌한 독립운동가이다. 김구·이시영·이회영·김원봉 등도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이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다른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역시 귀하지만,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적 갱신에 있어 이승만 대통령만큼 크게 기여한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정치와 신앙 양면에서 다른 어떤 독립운동가들보다 일본 제국주의 전범들이 질색할 만한 일을 앞장서 주도하고 성공시킨 인물이다. (계속)

**龍光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걸러낸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 한국 혜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으뜸병원, 혜민병원  
혜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혈액 췌장암 CA19-9
- ♣ 70개의 기본검사
- ♣ 갑상선 검사 (TSH, T3, T4)
- ♣ 경동맥 초음파
- ♣ 뇌 MRI

### 검진비용

~~\$950~~ **\$44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4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강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혜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문의전화 T.(213)341-5123**